
		<h1>보 도 자 료</h1>		<b>수도권매립지 종료</b>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7월 6일(화) 총 4매			
담당 부서	도시계획과	담 당 자	• 도시계획담당 강유정 ☎440-4621 • 담당자 이호건 ☎440-4623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십 노후 산업 공간, “녹색 주거복합공간” 으로 재탄생

- 동구 만석동, 화수동, 송림동 일원 약 498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 ‘해양산책로~북성포구~화도진 공원’ 등 열린 공간 조성 -
- 공업지역 적정규모 산업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개발규모(900㎡) 결정 등 -

동구 만석동 동일방직 등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 일대가 노후 산업공간에서 시민 친화적 녹색 주거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만석동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노후 산업공간을 친환경 녹색 주거복합공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에 담아 14일간('21.7.5~7.18.)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민간이 주거복합공간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인천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공원·녹지·문화시설 등 동구관내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석동 일원은 1980년대 이후 공장 등으로 단절된 해안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해안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고, 악취 문제로 고통을 주던 북성포구 십자수로는 매립되어 공원·녹지·광장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 친환경 녹색 주거복합공간이 마련되면 해양산책로~북성포구~화도진 공원을 잇는 새로운 열린 공간이 형성되어 항만과 공업기능이 주를 이루던 도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SOC를 입지시켜 시민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가 시급한 만석동 소규모 주거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주거취약지역을 특별계획구역에 포함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빠트리지 않았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도시계획 정책을 수립해 ‘도시환경이 아름답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 해양산책로~북성포구~화도진 공원을 잇는 새로운 열린공간 》





## □ 위치도

